

공자 사후 공문 후계구도와 《논어》의 편찬

- 학이편을 중심으로 -

김 영 기*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유자(有子), 증자(曾子)와 학이편(學而篇) |
| II. 공자 사후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지위 | IV. 맺음말 |

I. 문제의 제기

《논어》의 편찬 시기와 주체에 관하여 역대 수 많은 문헌의 기록과 학자들의 주장이 존재한다.¹⁾ 이들 중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자가 직접 필삭(筆削)을 가하여 편정(編定)했다는 주장²⁾을 제외하면 저마다 나름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 1) 이와 관련하여 당명귀(唐明貴)의 《논어학사(論語學史)》(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9)제1장에서 역대 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잘 정리해 놓아 참고할 만하다.
- 2) 청대(清代) 요연(廖燕) 《이십칠송당집(二十七松堂集)》(東京: 柏悅堂, 1862)卷 7, <雜著>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논어를 공자 제자들의 기록으로 보는데 이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내가 보기에 논어는 성인의 경천위지(經天緯地)의 문장으로 어찌 다른 사람이 대필할 수 있었겠는가? 논어의 편장(篇章)에 나오는 제현(諸賢)의 논설 또한 모두 공자가 필삭을 가한 문사이다. 간혹 여러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좇아 보탠 말도 있긴 하지만 이는 공자의 말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昔人稱論語爲孔子弟子所記, 并無確據. 余謂此書爲大聖人經天緯地之文, 豈他人可能代筆者耶? 則篇中諸賢論說, 亦皆孔子筆削之詞. 或群弟子有言從而附益其間, 要當以孔子爲正.) 주 1)의 책, 49쪽에서 재인용.

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과 주장의 차이는 왜 일어나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논어》에 나타난 서로 다른 필법(筆法)과 내용으로 보아 어느 특정한 시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공자가 죽기 전부터 공자 사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하여 끊임없는 개작과 첨삭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공자와 제자들의 언행은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부터 이미 노나라에서 회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 사후 공자 어록(語錄)을 중심으로 문집형태인 《논어》의 초기본이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 공자의 14년 망명기간을 시종 동행했던 안회(顔回)가 기록하여 노나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자장(子張)이 요대(腰帶)의 술에⁴⁾ 공자의 말을 현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중궁(仲弓), 자유(子游), 자하(子夏) 등 고제(高弟)들에 의한 자료⁵⁾, 공자 사후 3년의 심상(心喪)기간과 3년의 시묘기간 동안 자공(子貢)에 의해 정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⁶⁾, <옹야편>의 엄구(冉求), <현문편>의 헌(憲), <안연편>의 유약(有若) 등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자

3) 주 1)의 책, 56쪽 참조.

4) <위령공(衛靈公)>에 자장(子張)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 행해질 수 있는지를 묻자, 공자가 이에 대답한 내용을 자장(子張)이 요대(腰帶)의 술에 기록하였다(子張書諸紳)라고 하였다.

5) 형병(邢昺) 《논어소(論語疏)》에서 鄭玄의 말을 인용하여 《논어(論語)》는 “중궁, 자유, 자하 등이 찬정(撰定)하였다.(仲弓, 子游, 子夏等撰定)”고 하였다. 또 “공자가 죽고 난 뒤 미언(微言)이 이미 끊어졌다. 제자들이 흩어져 각자 이견으로 인해 스승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워 서로 논의하여 찬정하였다.”(然則夫子既終, 微言已絕, 弟子恐離居以後, 各生異見, 而聖言永滅, 故相與論撰.) 또 유향(劉向)의 말을 인용하여 “노론 20편은 모두 공자 제자가 여러 좋은 말들을 기록한 것이다.”(漢中壘校尉劉向言, 魯論語二十篇, 皆孔子弟子記諸善言也.)

6) 실제로 자공 또한 공자의 망명기간 동안 동행하여 적잖은 기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기·단궁상》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자공이 묻기를 ‘어찌 빨리 돌아가서 우제(虞祭)를 지내는 것만 하겠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소자들이! 이것을 기록해라. 나는 아직 저렇게 행할 수가 없었다.’했다.”(子貢曰: 豈若速反而虞. 子曰: 小子識之, 我未之能行也.)

료들이 초기 《논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대(漢代)의 유향(劉向)⁷⁾, 조기(趙岐)⁸⁾ 등이 《논어》를 제자들의 집단기록으로 주장하였고, 특히 정현(鄭玄)⁹⁾과 류보남(劉寶楠)¹⁰⁾은 중궁, 자유, 자하 등이 서로 의논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왕충(王充)은 이렇게 정리된 《논어》가 수 천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 청대(清代) 적호(翟灝)는 왕충(王充)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¹²⁾ 1993년 10월 호북성(湖北省) 사양현(沙洋縣) 관점초묘(郭店楚墓)에서 기원전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죽간(竹簡)이 출토되었다. 이 중 정리자에 의해 분류된 <어총(語叢)> 4편은 형식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논어》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논어》와 동일한 구절이 2~3개의 죽간에 한 장(章)씩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초기 《논어》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한 《논어》는 훗날 문인들에 의하

-
- 7) 주 6)참조.
- 8) 조기(趙岐), 《맹자제사(孟子題辭)》(十三經注疏本): “七十子之疇, 會集夫子所言, 以爲論語.”
- 9) 주 6)참조.
- 10) 류보남(劉寶楠), 《논어정의(論語正義)》(북경, 중화서국, 1990): “要之, 論語之作, 不出一人, 故語多重見, 而編輯成書, 則由仲弓, 子游, 子夏首爲商定.”
- 11) 왕충(王充), 《논형·정설(論衡·正說)》: “논어는 제자들이 공자의 언행을 함께 기록한 것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많아 수 천편이나 되었다.”(夫論語者, 弟子共紀孔子之言行. 敕記之時甚多, 數十百篇.)
- 12) 적호(翟灝), 《사서고이·총고(四書考異·總考)》(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권9: “왕충이 논어가 본래 수십 백편이 된다고 하여 듣기에 의외로 놀라운 점은 있으나 미처 모아서 논하지 못한 때까지로 보면 이 역시 지나치거나 허망한 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王氏云論語本數十百篇, 殊覺駭聽; 然溯未輯論時言之, 亦未可謂其夸誕.)
- 13) 이령(李零), 《성인을 버리면 참 공자가 보인다(去聖乃得眞孔子)》(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8), 6쪽 참조. 김용옥 《도올논어》(서울: 통나무, 2000), 55쪽. “논어를 읽을 때 간결한 자왈(子曰)의 형태를 취한 것을 고층대에 속하는 파편으로 추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BC 300년 이전의 문헌이 확실한 관점죽간(郭店竹簡)에 나타난 논어 구절도 그러한 간결한 추상적 내용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여 본격적인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학이편> 등에 보이는 유자(有子)와 증자(曾子), <선진편>의 민자(閔子), <옹아편>과 <자로편>의 염자(冉子) 등을 자(字)로 기록하지 않고 자(子)로 기록한 것이나, <자장편>에서 자하(子夏)의 문인이라고 기록한 것과¹⁴⁾ 같은 일단의 자료들은 문인들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한서·예문지》는 공자가 살아 있을 당시 제자들이 각각 따로 기록해 두었던 것을 공자 사후 문인(門人)들이 그 기록을 서로 모아 논찬(論纂)한 것¹⁵⁾이라 하였고, 당(唐)의 황간(皇侃)도 문인들의 공동 저작이라 하였다.¹⁶⁾ 그러나 정자(程子)는 문인들 중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편찬하였다고 주장하였고¹⁷⁾, 왕응린(王應麟)¹⁸⁾도 이에 동의하였다. 주이존(朱彝尊)¹⁹⁾은 민자(閔子), 적호(翟灝)²⁰⁾는 염자(冉子)의 문인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종원(柳宗元)²¹⁾, 주자(朱子)²²⁾, 장학성(章學誠)²³⁾은 증자의 문인들이 《논

14) <자장(子張)>: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교유에 관해 물었다.”(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15)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論語者, 孔子應答弟子時人及弟子相與言而接聞於夫子之語也. 當時弟子各有所記, 夫子既卒, 門人相與輯而論纂, 故謂之論語.”

16) 황간(皇侃), 《논어의소(論語義疏)》: “論語者, 是孔子歿後, 七十弟子之門人所共撰錄也.”

17) 정이(程頤), 《정자경설(程子經說)》: “論語, 曾子有子弟撰, 所以知者, 惟二子不名.” 주희(朱熹), 《논어집주서(論語集注序)》: “程子曰: ‘論語之書, 成於有子曾子之門人, 故其書獨二子以子稱.’”

18) 왕응린(王應麟), 《곤학기문(困學紀聞)》: “程子謂此書成於有子曾子之門人也.”

19) 주이존(朱彝尊), 《경의고(經義考)》(북경: 중화서국, 1998)卷211. “昔賢謂論語出於曾子有子之門人, 予意出於閔氏.”

20) 주 12)의 책. “論語第六篇云, 冉子請粟, 第十三篇云, 冉子退朝. …… 則此書又有出於冉氏門人者矣.”

21) 유종원(柳宗元), 《유하동집(柳河東集)》卷4, <논어변(論語辨)>: “공자 제자 중 증삼이 공자보다 46세 아래로 나이가 가장 적었다. 증자가 늙어 죽었다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된 바, 공자보다 훨씬 뒤이다. 증자가 죽었을 당시 다른 제자들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증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어에 제자들은 반드시 자(字)로 기록하였는데, 유독 증자와 유자만이 그렇지 않다. 제자들이 그렇게 칭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어》의 최종 편찬자일 것이라고 하였다.

최술(崔述)은 《논어》가 공자 문인들의 저작도 아니며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²⁴⁾ 공자 제자의 문인들이 《논어》의 최종 편찬자가 될 수 없으며 제자의 문인들이 각자 스승의 말을 여러 편으로 추기(追記)한 것을 훗날 유자(儒者)들이 다시 편집하여 완성하였을 것이라 하였다.²⁵⁾ 유자, 증자 등 공자 제자의 문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성편(成篇)되어 《논어》의 형태가 갖추어진 이후로도 여러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보태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예기(禮記)》의 <단궁편(檀弓篇)>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향당편>과 같이 공자의 일상생활을 규범화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독립된 한 편으로 정리된 자료, 제(齊)나라 유가의

…… 아마도 악정자춘, 자사와 같은 이들이 함께 논어를 기록하였을 것이다.”(孔子弟子曾參最少, 少孔子四十六歲. 曾子老而死, 是書記曾子之死, 則去孔子也遠矣. 曾子之死, 孔子弟子略無存者矣. 吾意曾子弟子爲之也. 何哉? 且是書載弟子必以字, 獨曾子有子不然. 由是言之, 弟子之號之也. …… 蓋樂正子春, 子思之徒與爲之爾.)

- 22) 주희(朱熹), 《論語集注序》에서는 논어가 유자와 증자의 문인이 편찬했다는 정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논어혹문(論語或問)》에서는 정자가 유종원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판하고, 주자는 유자는 인정하지 않고 증자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유(종원)씨의 말 중 증자에 관해 논한 것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유자가 (제자들의)비난으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사가들의 비루하고 황당무계한 말로 유씨가 이에 미혹된 것이다. 맹자를 상고해 보면 당시 증자만이 안 된다 하여 그 의론을 잠재웠다. 어찌 유자가 공자의 지위를 대신한 데 따른 호칭을 썼단 말인가? 정자가 유씨의 말을 재단하여 논어를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지었다고 한 것이다.”(柳氏之論曾子者得之. 而有子叱避之說則史氏之鄙陋無稽, 而柳氏惑焉. 以孟子考之, 當時既以曾子不可而寢其議, 曷嘗有子據孔子之位而有其號哉? 故程子特因柳氏之言斷而裁之, 以爲論語之書成于有子曾子之門人.)
- 23) 장학성(章學誠), 《문사통의(文史通義)》(臺北: 華世出版社, 1980), 內篇一, <詩教上>: “論語記夫子之微言, 而曾子子思俱有述作以垂訓.” 또 “論語記曾子之歿, 吳起嘗師曾子, 則曾子歿於戰國初年, 而論語成於戰國之時明矣.”
- 24) 최술(崔述),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崔東壁遺書)卷2, <年譜竄易世家>
- 25) 위의 책, 卷4, <論語成於後儒纂輯>: “余按 …… 則是孔子既歿數十年後, 七十子之門人追記其師所述以成篇, 而後儒輯之以成書者, 非孔子之門人弟子之所記而輯焉者也.”

손을 빌어 정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씨편>, 고대의 제왕이나 일민(逸民)을 주제로 한 자료, <미자편>에 보이는 장주학과와의 관계를 시사하는 여러 설화, 심지어 자하(子夏), 자유(子游), 자장(子張)의 세 유파가 순자(荀子)시대까지 대립했던 시기의 자료²⁶⁾에 이르기까지 출처와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자료가 공자 사후(BC479) 춘추말기부터 맹자(孟子)(BC372~BC289)를 지나 순자(荀子)(BC313~BC238)에 이르는 전국 말기까지 약 200여 년²⁷⁾의 오랜 기간에 걸쳐 비로소 완성되었을 것이다.

《논어》는 어느 한 시기 특정 집단이나 학파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 편찬에 개입했던 주체세력으로 보면 완성본 일지는 모르나 그들의 사후 통용과정에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첨삭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서한(西漢) 초에 이르러 노론(魯論)과 제론(齊論), 그리고 고론(古論)이 햇빛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공자 사후 약 400년 후 서한 말 선제(宣帝) 때 이르러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가 노론(魯論)을 주로 하고, 노론(魯論)보다 <문왕(問王)>, <지도(知道)> 등 두 편이 더 많은 제론(齊論), 그리고 공자의 고택(古宅)에서 발견된 고론(古論)을 기초로 교정을 가하여 확정된 이른바 《장후론(張侯論)》²⁸⁾이 바로 오늘날의 《논어》인 것이다.

26)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장원철 옮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서울: 한길사, 2004), 321-322쪽 참조.

27) 주 1)의 책에 논어의 편찬시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상세히 실려 있어 참고할 만하다.

28) 하안(何晏), 《논어집해서(論語集解序)》: “제론에는 문왕, 지도편이 있어 노론보다 두 편이 많았다. 고론에는 이 두 편이 없었고, 요왈편 다음에 자장문 한 편이 더 있었는데 자장에 관한 편 만 두 편으로 모두 21편으로 되어있어 제론과는 편차가 달랐다. 안창후 장우는 본래 노론을 수학하였으나 제론도 같이 강연하였다. 뛰어난 쪽을 좇아 장후론이라 불렀는데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齊論有問王知道, 多於魯論二篇, 古論亦無此二篇. 分堯曰下章子張問以爲一篇, 有兩子張凡二十一篇. 篇次不與齊論同. 昌侯張禹本受魯論, 兼講齊說, 善者從之, 號曰張侯論, 爲世所貴.)

<학이편>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맨 첫 장의 자왈(子曰)로 시작하는 공자의 말 다음 제 2장에 유자왈(有子曰), 제 4장에 증자왈(曾子曰)로 기록되어 있다. 유자(有子)와 증자(曾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소위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에 그것도 첫 편의 제 1장과 제 3장의 자왈(子曰) 다음에 각각 기록된 것일까? 그리고 유자와 증자는 어떤 관계였을까? 정자(程子)에 의하면 “논어는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자(子)로 칭하였다.”²⁹⁾고 하였다. 《논어》에서 이 두 사람을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子)로 기록한 것은 이들의 문인이 《논어》를 편찬하면서 그 스승을 높여 부른 까닭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어째서 이 두 사람의 말이 <학이편>의 자왈(子曰) 다음에 기록되었는지, 유자와 증자가 어떤 인물이며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나아가 이들 두 사람은 공자와 또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유자와 증자의 문인이 《논어》를 편찬했다면 《논어》에 기록된 유자의 말은 <학이편>에 3장, <안연편>에 1장³⁰⁾, 모두 4장만 기록된데 비해, 증자의 말과 증자와 관련된 기록은 <학이편>에 2장, <이인편>, <선진편>, <안연편>, <현문편>에 각 1장, <태백편>에 5장, <자장편>에 3장 등 모두 14장으로 왜 이렇게 기록의 빈도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나아가 <학이편>에 기록된 두 사람의 말이 과연 《논어》의 첫 편에 기록되어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천명(闡明)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공자의 죽음을 전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논어》의 편찬과 관련하여 어떤 곡절이 존재했는가? 본고는 유자(有子)와 증자(曾子), 그리고 <학이편>과 관련된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29) 주 17)참조.

30) <안연(顔淵)>에는 ‘유자(有子)’가 아니라 이름을 써서 ‘유약(有若)’으로 기록되어 있다.

II. 공자 사후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지위

공자는 69세 되던 해 긴 망명생활을 끝내고 노나라로 돌아와 4년 후 노나라 애공(哀公) 16년(BC479) 73세로 죽음을 맞이한다. 망명기간 동안 온갖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안회(顏回)와 자로(子路)를 차례로 잃은 터였다. 공자의 죽음은 당시 노나라 애공(哀公)이 조사(弔辭)를 내려 공자를 이보(尼父)라 칭하고 자신을 도와줄 원로를 잃었다고 비통해 할 만큼 국가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다.³¹⁾

당시 공자의 주요 제자는 이른바 사과십철(四科十哲)로 불리는 덕행(德行)의 안회(顏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언어(言語)의 재아(宰我), 자공(子貢); 정사(政事)의 염유(冉有), 자로(子路); 문학(文學)의 자유(子游), 자하(子夏) 등³²⁾과 공서화(公西華), 유약(有若), 증삼(曾參), 자장(子張)이 있었다. 이 중 안회, 염백우, 재아, 자로 등은 공자 보다 일찍 죽었고, 민자건은 행적이 불분명하며, 중궁과 염유는 계씨(季氏)의 가신을 지내고 있었다.³³⁾ 따라서 공자의 장례에 참석한 주요 제자는 자공, 공서화, 유약, 자하, 자유, 증삼, 자장 등으로 보인다.

자공(子貢)은 공자 제 2기 제자이다.³⁴⁾ 당시 42세로 가장 연장자였으며, 장문인(掌門人)의 지위에 있었다.³⁵⁾ 자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 3기

31) 《좌전》 애공16년: “四月己丑, 孔丘卒. 公誄之曰:‘昊天不弔, 不慙遺一老, 俾屏余一人以在位, 煢煢在疚. 嗚呼哀哉, 尼父, 無自津.’”《예기·단궁하(禮記·檀弓下)》: “魯哀公誄孔丘曰:‘天不遺耆老, 莫相予位焉. 嗚呼哀哉尼父!’”

32) <선진(先進)>: “德行: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言語: 宰我, 子貢. 政事: 冉有, 季路. 文學: 子游, 子夏.”

33) <자로(子路)>: “仲弓爲季氏宰.” <선진(先進)>: “冉求爲季氏宰.”

34) 공자 제자의 입문시기와 관련해서는 주 13)의 책, pp.67-74 참조.

35) 주 13)의 책, 79쪽.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 자공은 노나라에서 외교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공자가 죽었을 때 그는 장문인의 지위에 있었다. …… 특히 안연, 자로가 죽고 난 뒤 공문제자 중 그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孔子返魯, 他仕于魯, 從事外交活動. 孔子死, 他是掌門人. …… 特別是顏淵, 子路死後, 在孔門弟子中, 他地位最高.)

제자로, 공서화 31세, 유약 30세, 자하 29세, 자유 28세, 증삼 27세, 자장이 25세였다. 장문인인 자공이 공자의 장례를 총 주관하였고³⁶⁾ 공서화가 장례의식을 담당하였다.³⁷⁾ 공자 사후 구심점을 잃은 공문집단은 각자의 스승을 중심으로 공문(孔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으며³⁸⁾, 그 중 자하, 자유, 증자, 자장의 문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장편>에 자장과 관련한 기록이 3장, 자하가 10장, 자유가 2장, 그리고 증자의 말이 4장으로 서로간의 의견대립과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다.³⁹⁾

제자들과 문인들의 대립으로 공문(孔門)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자 당시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공자를 대신하여 공문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공문의 단합과 위상은 향후 자신들의 출사(出仕)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도 이러한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공문의 새 지도자 추대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맹자(孟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6) 《예기·단궁상(禮記·檀弓上)》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의 장례에 문인들이 상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 자공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공자의 초상에 문인들이 복을 입을 것을 의심했다. 자공이 말하기를 ‘옛날 부자께서 안연의 초상을 당했을 때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이 하셨으나 복은 없었다. 자로의 초상 때도 그랬다. 청컨대 부자의 초상을 치르는 데는 아버지 상을 당한 것처럼 하고 복은 없게 하자.’”(孔子之喪，門人疑所服。子貢曰：昔者夫子之喪顏淵，若喪子而無服。喪子路亦然。請喪夫子，若喪父無服.)

37) 위의 책. “공자의 초상에 공서적이 지(志)를 지었다. 관을 장식하는데 장(牆)을 만들고 삼(鬘)을 두고 피(披)를 늘였으니, 주나라 제도였다.”(孔子之喪，公西赤爲志焉，飾棺，牆置鬘，設披，周也.)

38) 최술(崔述),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崔東壁遺書) 권1, <辨速貧速朽之說>: “공자가 죽은 이후로 여러 제자들의 문인들이 각자 스승을 쫓아 자신의 스승의 주장만을 존중한 나머지 다른 주장을 비난하였다.”(蓋自孔子沒後，諸弟子之門人各私其師，故多自尊其師之說而譏他人.)

39) 주 26)의 책, 314쪽 참조.

옛날 공자가 죽었을 때 문인들이 3년간 심상(心喪)을 마친 후에 집을 꾸러 자공(子貢)에게 인사를 하고 서로 바라보며 곡하였다. 모두 실성(失聲)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자공(子貢)은 공자의 무덤으로 되돌아 와 집을 짓고 홀로 3년간 시묘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훗날 자하(子夏), 자장(子張), 자유(子游) 등이 유약(有若)이 성인을 닮았다 하여 공자를 섬기던 예로 유약(有若)을 모시고자 증자(曾子)에게 강요하였다. 증자(曾子)가 “그럴 수 없다. (공자의 인격은) 장강(長江)이나 한수(漢水)로 씻으며 가을 햇볕으로 이를 쬐이라. 희고도 희어서 더 이상 더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⁴⁰⁾

당시 장문인 이었던 자공(子貢)이 살아 있었는데도 왜 하필 유자(有子)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천하였을까? 우선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자하, 자유, 자장 등은 견해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서로에 대한 견제가 심하여⁴¹⁾ 이 중 어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하기가 사실상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하와 자장은 평소 공자로부터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으로 평가되던 인물이었다.⁴²⁾ 게다가 이들은 자하가 위(衛)나라, 자유는 오(吳)나라, 자장은 진(陳)나라 출신이었다. 특히 자장은 증자보다 두 살이나 아래였고, 평소 봉록⁴³⁾과 명성⁴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편벽된 성격이었다.⁴⁵⁾ 또 평소 인의(仁義)의 실천에 소홀하여 문인들과 교류하기는 했으나 존경받지는 못하였고, 특히 자유와 증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⁴⁶⁾ 증자(曾

40) 《맹자·등문공상(孟子·滕文公上)》: “昔者, 孔子歿, 三年之外, 門人治任將歸, 入揖于子貢, 相嚮而哭, 皆失聲, 然後歸. 子貢反, 築室于場, 獨居三年, 然後歸. 他日, 子夏, 子張, 子游, 以有若似聖人, 欲以所事孔子事之, 彊曾子. 曾子曰: 不可.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尙已.”

41) <자장(子張)>에 자하, 자유, 자장, 증자 간의 견해 차이와 서로에 대한 평가가 기술되어 있다.

42) <선진(先進)>: 子貢問: “師與商也孰賢?”子曰: “師也過, 商也不及.”

43) <위정(爲政)>: “子張學干祿.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44) <안연(顏淵)>: 子張問: “士何如斯可謂之達矣?”子曰: “何哉, 爾所謂達者?”子張對曰: “在邦必聞, 在家必聞.” (후략)

45) <선진(先進)>: “柴也遇, 參也魯, 師也辟, 由也喭.”

46) 《공자가어·제자해(孔子家語·弟子解)》: “居不務立于仁義之行, 孔子門人友

子) 또한 노나라 출신이기는 하지만, <자장편>의 기술로 보아 자하, 자유, 자장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공자로부터 우둔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어⁴⁷⁾ 지도자로 추대하기에는 적절한 인선(人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공(子貢)은 어떤가? 《논어》 20편 중 13편에 걸쳐 자로(子路) 다음으로 많은 40장 가까이 언급된 인물이었다. 평소 공자로부터 그릇 중에서도 종묘에 없어서는 안 될 호련(瑚璉)⁴⁸⁾으로 평가 받았다. 공자의 제자 중 언어(言語)에 이름을 올렸고⁴⁹⁾, 특히 외교사령에 뛰어났다.⁵⁰⁾ 공자의 망명기간 중에는 비록 들락거리기는 해도 일정기간을 동행하였다. 장사에 관심이 많고⁵¹⁾ 이재(理財)에 밝아⁵²⁾ 망명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⁵³⁾, 공자가 망명생활을 끝내고 노나라로 귀국하는데 염유(冉有)와 함께 적잖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⁵⁴⁾ 또한 평소 그의 뛰어난 언사로 공자를 선양하거나⁵⁵⁾ 변호하는데 앞장섰으며⁵⁶⁾ 공자 사후에도

之而弗敬.” <자장(子張)>: “子游曰:‘吾友張也爲難能也, 然而未仁.’” 또 같은 편에서, 曾子曰: “堂堂乎張也, 難與并爲仁矣.”

47) 주 45) 참조.

48) <공야장(公冶長)>: “子貢問曰: ‘賜也何如?’ 子曰: ‘女, 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

49) 주 32) 참조. 《맹자·공손추상》: “宰我, 子貢, 善爲說辭; 冉牛, 閔子, 顏淵, 善言德行.”

50) 자공(子貢)의 외교에 관한 활약상은 《사기·중니제자열전》과 《좌전》 애공 7년, 11년, 12년, 15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51) <자한(子罕)>: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匱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

52) <선진(先進)>: “賜也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53) 역중천(易中天), 《백가쟁명(百家爭鳴)》(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33쪽 참조.

54) 《사기·공자세가(史記·孔子世家)》에 보면 공자가 귀국하기 전에 자공이 당시 노나라의 집권자인 계강자(季康子)를 위해 오나라와의 회맹에 외교사절로 파견되었고, 염유는 제나라의 전쟁에 장수로 출전하여 승전하자, 계강자가 염유를 칭찬하면서 스승인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공자를 적극 변호하여 계강자가 공자를 초빙하고자하는 의사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공자의 귀국에 당시 집권자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55) <자한(子罕)>: “太宰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 ‘固天縱之將

소위 공자 성인화에 헌신하였다.⁵⁷⁾ 공자가 죽기 일주일 전에 공자를 찾은 자공(子貢)은 늦게 온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말과 함께 후계를 암시하는 것 같은 말을 듣기도 하였다.⁵⁸⁾ 공자가 죽었을 때는 3년간의 심상(心喪) 외에 혼자 3년을 더 시묘할 만큼 충성심이 가장 강한 제자 중 한 명 이었다.

자공(子貢)은 안회(顏回)와 견줄 만한 총명함을 지녔으나⁵⁹⁾ 스승의 심중을 헤아리는 데는 장사꾼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⁶⁰⁾ 평소 뛰어난 언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인물평가에 능하여 공자로 부터 편찬을 받기도 하였고,⁶¹⁾ 또 적절한 상황판단으로 형세의 추이와 인

聖, 又多能也.”

- 56) 자공의 공자에 대한 변호는 <자장(子張)>의 마지막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제나라 경공(景公)이 자공에게 공자에 대해 묻자, 공자를 ‘성인(聖人)’으로 묘사하여 경공을 탄복시킨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 57) 《맹자·공손추상》: “子貢曰: ‘見其禮而知其政, 聞其樂而知其德. 由百世之後, 等百世之王, 莫之能違也. 自生民以來, 未有夫子也.’” 《사기·화식열전(史記·貨殖列傳)》: “七十子之徒, 賜最饒富; 結駟連騎, 束帛之幣以聘享諸侯, 所至國君無不分庭與之抗禮. 夫使孔子名布揚於天下者, 子貢先後之也.” 《맹자·공손추상》: “宰我, 子貢, 有若, 智足以知聖人.” 이와 관련하여 최술(崔述) 또한 자공(子貢)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崔東壁遺書) 卷1, <辨存魯, 亂齊, 亡吳, 強晉, 霸越之說>: “論語子張篇, 子貢之推尊孔子至矣. 則孔子之道所以昌明于世者率由于子貢, 其功不可沒也.”
- 58) 《사기·공자세가(史記·孔子世家)》: “子貢請見, 孔子方負杖逍遙於門, 曰: ‘賜, 汝來何其晚也?’ (중략) 謂子貢曰: ‘天下無道久矣, 莫能宗予.’”
- 59) <학이(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공야장(公冶長)>: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 吾與與弗如也.’”
- 60) 《사기·공자세가(史記·孔子世家)》: “공자가 물었다. 사야, 《시》에 이르기를 ‘외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가?’ 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틀린 것일까?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孔子曰: “賜, 詩云‘匪兕匪虎, 率彼曠野.’ 吾道非邪? 吾何爲於此?” 子貢曰: “夫子之道至大也, 故天下莫能容夫子. 夫子蓋少貶焉?”)
- 61) <헌문(憲問)>: “자공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악평을 하자,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참으로 뛰어난가 보구나? 나는 그럴 겨를이 없는데.’” (子貢方人. 子曰: “賜也賢乎哉? 夫我則不暇.”)

생사의 변화에 밝았지만⁶²⁾ 정작 자신의 수양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이처럼 내적 수양보다 타인과 외부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고 뛰어났던 자공(子貢)은 점차 학문에 대한 권태를 공자에게 직접 토로하기도 하였다.⁶⁴⁾

이렇듯 자공은 공자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내적 수양의 부족과 외부세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문인의 형성에는 소홀하여 공자 사후 8대 유파에 자공의 유파는 보이지 않는다.⁶⁵⁾ 비록 공자 사후 장문인으로서 공자의 장례를 주관하였다고는 하나 지지를 받을 만한 강력한 문인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자공(子貢)이 노나라 출신이 아닌 위(衛)나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애초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학이편>에 2장을 할애하여 자공의 말을 배치한 것은 공자에 대한 공현과 장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공서화(公西華)는 노나라 출신으로 평소 공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공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빈객을 접대하고 교섭하는 일에 밝아 공자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⁶⁷⁾, 공자를 대신하여

62) 이와 관련하여 《좌전》정공 15년과 애공 16년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63) <옹야(雍也)>: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자공은 많은 재물로 대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은근히 뽐내고 싶었으나, 공자가 남을 구제하기 앞서 자신의 수양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평소 자공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또 <공야장(公冶長)>에서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라고 했는데, 이로써 자공이 평소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推己及人) 서(恕)가 부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4) 《순자·대략(荀子·大略)》: “子貢問於孔子曰: ‘賜倦於學矣! 願息事君.’”

65) 《한비자·현학(韓非子·顯學)》: “自孔子死也, 有子張之儒, 有子思之儒, 有顏氏之儒, 有孟氏之儒, 有漆雕氏之儒, 有仲梁氏之儒, 有孫氏之儒, 有樂正氏之儒.”

66) <선진(先進)>에 공자와 자로(子路), 증석(曾皙),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 등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67) <공야장(公冶長)>: “子曰: ‘赤也, 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也, 不知其仁也.’”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⁶⁸⁾ 공자의 장례의식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학문적 성취나 인격을 가늠할 만한 기록이 없고, 공자 또한 그의 인덕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이⁶⁹⁾ 당시 제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자(有子)는 이름이 약(若)이고 자(字)는 자유(子有)이다. 공자가 69세 되던 해, 14년간의 기나긴 망명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직후에 입문한 이른바 제3기 제자이다. 공자보다 43세가 적었으므로⁷⁰⁾ 공자가 죽었을 때는 30세였다. 공자가 죽기 전까지 겨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논어》에 스승 공자와의 대화나 제자간의 대화도 보이지 않고, <학이편>에 ‘유자왈(有子曰)’로 기록된 3장, <안연편>에 노나라 애공(哀公)과의 대화 1장이 유자(有子)와 관련한 기록의 전부이다. 이처럼 유자가 고제(高弟)도 아니고, 장문인인 자공이 있었는데도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자하(子夏) 등이 어떤 이유로 유자를 지목했을까?

맹자(孟子)는 공자가 죽고 난 뒤 자하(子夏) 등이 유자를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던 예(禮)로 모시자고 하는, 사실상 공문집단의 지도자로 추천한 것은 유자가 성인(聖人)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주자(朱子)는 《예기·단궁상》에서 자유(子游)가 유약의 말이 공자를 닮았다고 한 말을 근거로 유약의 언행과 기상이 성인을 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⁷¹⁾ 그러나 사마천(司馬遷)은 제자들이 공자를 그리워한 나머지 단지 모습이 공자를 닮은 유약을 스승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⁷²⁾ 이령(李零)은 사마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내용이 조금 다르다. 즉 유약을 스승으로 추대하려는 의

68) <옹야(雍也)>: “子華使於齊.”

69) 주 67) 참조.

70)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는 33세가 적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사기·중니제자열전(史記·仲尼弟子列傳)》의 설을 따랐다.

71) 주희(朱熹), 《맹자집주》: “有若似聖人, 蓋其言行氣象, 有似之者. 如檀弓所記, 子游謂有若之言, 似夫子之類, 是也.”

72) 《사기·중니제자열전》: “孔子既歿, 弟子思慕, 有若狀似孔子, 弟子相與共立爲師, 師之如夫子時也.”

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움의 대상으로 공자와 빼닮은 유약을 사자(死者)를 대신하는 시(尸)로 모시고 스승을 대하듯 제자들의 예를 받도록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⁷³⁾ 시라카와 시즈카는 자하 등이 유약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제안을 했을 리가 만무하며, 아예 이 일 자체를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다.⁷⁴⁾

사마천, 이령의 주장대로라면 단지 유자가 공자를 닮아 그리움에 대한 보상으로 스승으로 모셨고, 스승으로 모실 의도는 전혀 없이 스승을 대하듯 그 예만 갖추었으며, 특히 시라카와 시즈카의 말대로라면 맹자 이후 이와 관련한 모든 논의가 터무니없는 일이 되고, <학이편>에 유자의 말이 공자의 말 다음에 기록된 점과 유약(有若)으로 기록하지 않고 유자(有子)로 기록한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 근거가 모호하게 된다. 그래서 고염무(顧炎武)는 맹자가 유자가 성인을 닮았다고 한 것이지 공자를 닮았다고 한 적이 없으며 유자가 설사 공자의 인격에는 비할 바가 못 되나 당시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 스승으로 추대된 것으로 사마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⁷⁵⁾, 또 왕응린(王應麟)도 주자의 말대로 언행과 기상이 성인을 닮았기 때문이지 모습이 공자를 닮았다고 한 사마천의 주장은 잡설(雜說)을 취한 결과로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지적하였다.⁷⁶⁾ 결국 공문집단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을 비록 증

73) 이령(李零), 《성인을 버리면 참 공자가 보인다(去聖乃得眞孔子)》(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8), 27-28쪽. 《상갓집 개(喪家狗)》(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7), 54쪽 참조.

74)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장원철 옮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296쪽.

75) 고염무(顧炎武), 《일지록(日知錄)》: “慈谿黃氏曰: 有若雖不足以比孔子, 而孔門之所推尚, 一時無及有若可知. 愚按 …… 傳記言, 孔子卒, 哀公誄之. 有若之喪, 悼公弔焉. 其爲魯人所重, 又可知矣. 又曰: 孟子不曰有若似孔子, 而曰有若似聖人. 史記乃云有若狀似孔子, 謬甚.”

76) 왕응린(王應麟), 《곤학기문(困學紀聞)》: “非也. 此太史公采雜之謬. …… 朱子云蓋其言行氣象有似之者. 如檀弓所記子游謂有若之言似夫子之類是也. 豈謂貌之似哉?”

자가 반대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제자와 문인들이 모두 승복한 사실로 미루어 공자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⁷⁷⁾

그렇다면 유자는 언행과 기상이 성인과 닮아 공문집단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인가? 《공자가어(孔子家語)》는 유자가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고도(古道)를 좋아하였다.”(爲人強識, 好古道)고 하였고, 주자는 유자가 태도가 중후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불임성이 있어 당시 제자들이 모두 따랐을 것이라고 하였다.⁷⁸⁾ 이는 <학이편>에서 신공(信恭), 선왕의 도는 예를 행함에 화(和)를 가장 고귀하게 여겼다고 한 말,⁷⁹⁾ 또 <안연편>에서 당시 노나라 애공(哀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주(周)나라의 정전제(井田制)를 강조한 사실⁸⁰⁾ 등을 통하여 유자의 성품과 고도(古道)를 좋아했다는 학문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예기·단궁상》에 보면 유자와 증자사이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논쟁의 핵심은 증자가 공자로부터 들은 말에 대하여 유자는 공자의 말이 아닐 것이라 주장하였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자유(子游)가 이를 판정하여 유자의 말이 공자의 말과 닮았다고 함으로써 유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논쟁에서 유자

77) 완원(阮元), 《논어해(論語解)》: “제자들은 유자의 말이 공자와 닮아 스승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오직 증자만이 안 된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승복하였다. 그래서 논어에서 유자의 말이 증자의 말 앞에 배열된 것이다.”(弟子以有子之言似夫子而欲師之, 惟曾子不可強, 其餘皆服之矣. 故論語次章即列有子之語, 在曾子之前.) 고염무(顧炎武)《일지록(日知錄)》: “慈谿黃氏曰:‘有若雖不足以比孔子, 而孔門之所推尚, 一時無及有若可知.’”

78) 주희(朱熹), 《주자어류(朱子語類)》卷20, <論語二>: “想是一個重厚和易底人, 當時弟子皆服之, 所以夫子歿後, 欲以所事夫子者事之也.”

79) <학이(學而)> 제13장: 有子曰:“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12장: 有子曰:“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80) <안연(顔淵)>: 哀公問於有若曰:“年饑, 用不足, 如之何?”有若對曰:“盍徹乎?”曰:“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對曰:“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였다. 정공(定公) 9년, 공자가 50세 때 노나라 중도재(中都宰)를 지낸 일, 정공 12년, 공자 55세 때 사구(司寇)를 그만두고 망명길에 올랐던 일, 그리고 애공(哀公) 6년, 공자 63세 때 초나라 소왕(昭王)의 초빙의사를 듣고 초나라로 갔던 일이다. 유자가 공자보다 43세가 적었으므로 공자의 일련의 행적은 유자가 7세 때부터 20세까지의 일이 된다. 당시는 유자가 아직 어렸고, 또한 망명기간을 동행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자 만년에 입문하였으므로 틀림없이 공자의 이러한 행적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행적을 기억하여 증자와의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유자가 입문하기 전부터 공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교가 논리적이고 《공자가어》의 기록처럼 기억력이 뛰어난 인물(爲人強識)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결국 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증자보다는 유자가 공자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고급의 일에 정통했다는 방증이 된다. 유자가 공자를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 맹자(孟子)의 말이나⁸¹⁾, 유자가 책을 읽을 때는 잠을 쫓기 위하여 손바닥을 지졌다든 순자(荀子)의 말⁸²⁾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좌전》애공 8년의 기록에 의하면, 유자는 당시 오나라가 노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오왕(吳王)의 본진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300명의 정예인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⁸³⁾ 유자의 나이 22세 때였다. 《한비자》에서 “유자(儒者)의 복장에 칼을 찬 무리가 많다”⁸⁴⁾고 한 것처럼 유자(有子) 또한 무예에 뛰어났던 인물로 자로의 전통을 이어 받은 유협(儒俠)출신일 가능성이 높다.⁸⁵⁾ 《좌전》의 간단한 기록으로 유자의 인물됨을 단정하기에는

81) 《맹자·공손추상》: “宰我子貢有若, 智足以知聖人.”

82) 주) 76의 책. “荀子云:‘有子惡臥而燂掌, 可以見其苦學.’”

83) 《좌전》애공 8년: “吳伐魯, (중략) 微虎欲宵攻王舍, 私屬徒七百人, 三踊於幕庭, 卒三百人, 有若與焉.”

84) 《한비자·문변(問辨)》: “是以儒服帶劍者衆.”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유자가 의협심과 애국심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왕응린(王應麟)은 주자의 말대로 태도가 중후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불임성(重厚和易)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義)를 실천하는데도 용감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⁸⁶⁾

이상을 종합하고, 자하 등의 제안에 증자가 반대한 이유가 공자의 고결한 인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자 또한 공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도자가 될 만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유자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 유자가 죽었을 때 당시 노나라 군주였던 도공(悼公)이 문상했다는⁸⁷⁾ 기록으로 보아 평소 노나라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⁸⁸⁾ 또한 유자는 공자를 소위 출류발취(出類拔萃)한 성인으로 현창(顯彰)함으로써 언어(言語)에 뛰어났던 재아, 자공과 더불어 공자의 성인화에 동참하였다.⁸⁹⁾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자공이 평소에 유자를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로 주목하였다면, 특히 주도 세력이었던 자유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자를 자하 등이 장문인이었던 자공과의 충분한 교감아래 유일한 대안으로 추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⁹⁰⁾

85) 주 74)의 책, 202쪽 참조.

86) 주 76)의 책. “吳伐魯，微虎欲宵攻王舍，有若與焉，可謂勇于爲義矣，非但重厚和易而已也。”

87) 《예기·단궁상》: “有若之喪，悼公弔焉，子游擯。”

88) 주 75) 참조.

89) 《맹자·공손추상》: 宰我曰: “以予觀於夫子，賢於堯舜遠矣。”子貢曰: “見其禮而知其政，聞其樂而知其德。由百世之後，等百世之王，莫之能爲也。自生民以來，未有夫子也。”有若曰: “豈惟民哉! 麒麟之於走獸，鳳凰之於飛鳥，泰山之於丘垤，河海之於行潦，亦類也。出於其類，拔乎其萃，自生民以來未有盛於孔子也。”

90) 이령(李零), 《성인을 버리면 참 공자가 보인다(去聖乃得眞孔子)》, 83쪽 참조. 《예기·단궁상》에서 자유가 “유자의 말이 부자를 닮았다.”(甚矣，有子之言似夫子也)라고 하였고, 유자가 죽었을 때 도공이 문상하자 자유가 곁에서 안내를 맡았던 것으로(주 87참조) 보아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증거가 완강히 반대하였다. 반대의 주요 명분은 증거가 유자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자의 고결한 인격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⁹¹⁾ 이렇게 보면 증거의 의도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보인다.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유자와 증거의 논쟁을 통하여 알 수 있듯, 두 사람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고, 또 《맹자》의 기록에 따르면 추천자가 자하, 자유, 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공과는 상호 교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증거와는 어떤 상의나 교감도 없이 오로지 강요(彊曾子)하였다면 증거가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반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공문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시도되었던 새로운 지도자의 추천은 오히려 증거의 반대로 인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유자가 실제로 스승의 예우를 받으며 공문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유자의 지위는 이미 노나라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일로 유자는 공문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새롭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자신을 지지하는 문인들이 증가하여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증거 또한 반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과시함으로써 유자와 상응하는 세력을 구축하였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지도자인 유자를 시험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기·중니제자열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훗날 제자가 들어와 물었다. 옛날 공자께서 출타하실 때 제자들에게 우비(雨備)를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요?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1) 유보남(劉寶楠), 《논어정의》: “案曾子不可強, 非不服有子也, 特以尊異孔子, 不敢以事師之禮用之他人. 觀曾子但言孔子德不可尙, 而於有子無微辭, 則非不服有子可知也.” 채인후(蔡仁厚)《공문제자지행고술(孔門弟子志行考述)》(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2), p.129. “曾子反對亦并不表示不敬重有若, 只是他認爲的孔子, 不能以他人擬而代之而已.”

다. 《시(詩)》에서 말하기를 ‘달이 필성(畢星)을 만나면 큰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어제 저녁에 달이 필성(畢星)에 머무르지 않았던가? 다른 때는 달이 필성(畢星)을 만났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구(商瞿)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자 그의 모친이 첩실을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제나라 사신으로 가셨을 때, 상구의 모친이 선생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마라. 상구가 사십이 넘으면 다섯 명의 사내 아이를 두게 될 것이다. 때가 되자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이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유약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제자들이 일어나 말했다. 유자여! 물러나시오.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오!⁹²⁾

만일 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맹자(孟子)가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맹자 입장에서 보면 유자가 성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공자를 현창(顯彰)한 것이 사실이며, 자하 등이 유자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마치 시골 학동들이 장난삼아 훈장을 시험하여 놀려 주려는 듯한 유치한 일이 공문집단에서 일어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유자를 성인의 언행과 기상을 닮았다고 한 것은 맹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 증거가 완강히 반대한 마당에 유자가 지도자의 신분으로 공자의 자리를 대신한 사실이 결코 없으므로 이러한 일 또한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기록을 비루하고 황당무계한 낭설로 치부하였다.⁹³⁾

위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92) 《사기·중니제자열전》: “他日, 弟子進問曰: 昔夫子當行, 使弟子持雨具, 已而果雨. 弟子問曰: 夫子何以知之? 夫子曰: 詩不云乎? 月離於畢, 俾滂沱矣. 昨暮月不宿畢乎? 他日, 月宿畢, 竟不雨. 商瞿年長無子, 其母爲取室. 孔子使之齊, 商母請之. 孔子曰: 無憂. 瞿年四十後當有五丈夫子. 已而果然. 敢問夫子何以知此? 有若默然無以應. 弟子起曰: 有子避之, 此非子之座也!”

93) 주희(朱熹), 《주자혹문(朱子或問)》: “而有子叱避之說, 則史氏之鄙陋無稽, 而劉氏惑焉. 以孟子考之, 當時既以曾子不可而寢其議, 曷嘗有子據孔子之位而有其號哉?”

정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 안회와 자로가 죽고 난 뒤 공자 만년의 공문집단은 이미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집단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공자 사후 공자의 정신은 단절되었고, 특히 안회의 죽음은 공자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자를 잃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자의 후계자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⁹⁴⁾ 유자를 지도자로 추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공문집단은 이미 대립과 분열로 중심점을 잃은 상태였고 각자의 스승을 중심으로 분파의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었다.

당시의 사(士)계급은 유자의 복장에 칼을 찬 무리들이 많⁹⁵⁾ 유(儒)와 협(俠)의 구분이 모호하였으며 자신의 출로와 이익을 대표할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폭력으로 금령을 깨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등 사회적 화근이 되기도 하였다.⁹⁶⁾ 공문집단도 자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협(俠)의 무리가 끼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자(儒者)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공자가 48세 때 제나라로 망명하여 경공(景公)의 초빙을 받았으나 안영(晏嬰)이 공자의 중용을 극력 반대한 이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⁹⁷⁾ 공자 사후 공자의 정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공문집단이 오로지 자신의 출로를 보장받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리들로 잠식되었다면 위와 같은 유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94) 시라카와 시즈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319쪽.

95) 주 84)참조.

96) 주 53)의 책, 147쪽 참조.

97) 《사기·공자세가》: “경공이 기뻐하여 장차 공자를 이계(尼谿)의 땅에 봉하려 하자 안영이 말하였다. 유자는 언변이 좋고 말재주가 있어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믿고 오만하여 위사람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례를 중시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탕진하니 그들의 예법으로 풍속을 교화할 수 없습니다.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유세하며 관직이나 후한 봉록을 요구하니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景公說, 將欲以尼谿田封孔子. 晏嬰曰:‘夫儒者滑稽而不可執法, 倨傲自順, 不可以爲下; 崇喪遂衰, 破產厚葬, 不可以爲俗; 遊說乞貸, 不可以爲國。’)

사실 유자와 증자가 평소 경쟁관계에 있었고 지도자를 둘러싸고 증자의 반대로 인한 갈등관계가 유자의 지도자 추대 이후 더욱 표면화되었다면 특히 증자계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모욕감을 주는 등 유자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기》는 유자에 대해 진행된 비판과 반대운동 중 가장 패륜적인 사례를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는 반대파의 요구대로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증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문집단의 지지를 받았고, 설령 공자의 지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문집단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유자를 정점으로 하는 문인들이 강력한 세력집단을 형성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술(崔述)은 맑은 날, 비가 언제 올지 아는 것으로 공자를 성인으로 모신 것이 아닌 것처럼 유자의 언행과 학문이 성인에 가까워 성인을 닮았다고 했다면 유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며, 유자가 《맹자》의 기록대로 성인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공자를 성인으로 현창(顯彰)한 사실로 미루어 자신의 역량이 공자에 미치지 못한 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설사 자하 등이 스승의 예로 모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중도에서 그만 두었을 것으로 고증하였다.⁹⁸⁾

유자(有子)는 자하(子夏) 등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중도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설사 《사기》가 기록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98) 최술(崔述),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崔東壁遺書)卷2, <辨爲師被黜之說>. 余案: 諸弟子所以尊孔子者, 以其道大德崇, 非以其能知雨不雨也; 所以事有若者, 以其言行學問幾於聖人, 非以其能知雨不雨爲似聖人也; 烏有因其不知雨不雨遂黜有若者哉! 孟子曰: 他日, 子夏, 子張, 子游以有若似聖人, 欲以所事孔子事之. 但言其事聖人, 未嘗言其似孔子也; 但言游夏之徒欲事有若, 未嘗言有若公然自居於師也. 孟子曰: 有若智足以知聖人. 又述有子言云: 自生民以來未有盛於孔子也. 有子既知孔子爲生民所未有, 則其斷斷不敢使游夏以事孔子者事己, 明矣. 游夏此舉固不得爲無過, 然其心尙可原; 若有子公然不自量竟自擬於孔子, 豈尙足以爲有若哉! 然則當日之事, 蓋三子欲師有若而有若不肯居, 是以中輟.

이 일로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최술의 고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면 쫓겨난 일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제자들이 저지른 그와 같은 일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유자가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자하 등 고제(高弟)들의 제안이 증자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무산되었을 리 없고 또 유자가 거절한 기록도 없다. 최술의 고증은 유자의 명분을 살리고 공문집단의 대립과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공자와 같은 성인을 스승으로 모셨고 성인과 닮은 유자를 지도자로 제안하였으나 스스로 물러났으며, 설령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면 공문집단에서 위와 같은 패륜적인 일이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망을 전제로 한 고증이다.

유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도중에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 즉 자신의 역량이 성인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사양하였으나, 공문의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공문의 발전을 위하여 증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끊이지 않고 더욱 노골화되자 이를 수습하지 못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공문의 분열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한 나머지 스스로 사퇴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자 사후 공문집단의 지도자였다는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반대파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술의 고증은 맹자의 의증을 교묘하게 읽어 낸 결과이다. 주자는 유자 따위가 스승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을지 모르지만⁹⁹⁾ 증자, 자사의 학통을

99) 주자는 《맹자집주》에서 유자가 성인의 기상과 언행을 닮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어류》에서는 유자의 태도가 중후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불임성이 있어 제자들이 공자처럼 모시자는 제안에 승복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주 69 참조), 그러나 《논어혹문》에서는 유자가 증자의 반대로 인하여 공자의 지위

이어받은 맹자는 공문집단에서 일어난 자중지란과 수치스러운 일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유자를 높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문의 자존감을 지키려 하였고, 훗날 유자가 물러난 후 증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유자는 공사 사후 공문집단의 새로운 지도자였다. 증자의 반대가 있었고, 증자계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와 비판이 이어졌다. 급기야 《사기》의 기록대로 회대의 사건이 벌어졌으나 유자는 그와 같은 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후 명예롭게 스스로 사퇴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유자가 반대세력에 의해 쫓겨나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면 《논어》의 <학이편>에 유자의 말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맹자의 의도이다. 이렇게 되어야 유종원(柳宗元), 정자(程子) 등이 《논어》가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 <학이편>에서 유자의 말(有子曰)이 공자의 말(子曰) 다음에, 증자의 말(曾子曰) 앞인 제 2장과, 그리고 2개의 장(章)이 <학이편>에 더 기록된 타당한 이유를 밝히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유자(有子), 증자(曾子)와 학이편(學而篇)

<학이편>은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자왈(子曰)로 된 공자의 말이 8장, 유자(有子) 3장, 증자(曾子) 2장, 자공(子貢) 2장, 자하(子夏)가 1장을 차지하고 있다.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 29명 중 4명만이 <학이편>에 기록된 셈이다. 《논어》의 첫 편에 모든 제자들의 기록

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쫓겨 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라 하였다. 유약을 유자라 하고 논어를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편찬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정자가 유종원의 말을 오해한 결과라고 하였다. 《논어혹문》: “柳氏之論曾子者得之. 而有子叱避之說, 則史氏之鄙陋無稽, 而柳氏惑焉. 以孟子考之, 當時既以曾子不可而寢其議, 曷嘗有子據孔子之位而有其號哉? 故程子特因柳氏之言斷而裁之, 以爲論語之書, 成於有子曾子之門人.”

이 한꺼번에 기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공자의 이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추구하려 했던 안회나, 안회와 함께 망명기간 동안 끝까지 스승의 곁을 지켰던 자로의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사과십칠(四科十哲) 중 자공과 자하만 겨우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제아(宰我), 염유(冉有), 자유(子游) 등 다른 고제들의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자 만년의 제자인 유자와 증자의 기록이 5장을 차지하고 있다.

《논어》의 편차(編次)가 연대순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수한 의도에 따라 정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전목(錢穆)은 편차(編次)와 체례(體例)에 정해진 규칙이 없고 편장(篇章)의 선후 또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¹⁰⁰⁾ 《논어》의 내용 또한 예악(禮樂)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팔일편>¹⁰¹⁾, 공자의 일상 생활을 규범화하려는 의도로 애초부터 독립된 한편으로 기록된 <향당편>, 자왈(子曰)이 아니라 공자왈(孔子曰)로 기록하고 독자적으로 정리되어 제나라 유가의 손을 거친 제학(齊學)으로 판단되는 <계씨편>, 고대의 제왕이나 일민(逸民)을 주제로 한 <요왈편>, 일민적 설화로 장주학과와의 관계를 시사하는 <미자편>¹⁰²⁾ 등과 같이 동일한 주제아래 편집된 편목(篇目)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어》가 전체적으로 통일적 주제 없이 단편들의 조합 또는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¹⁰³⁾ <학이편>도 여느 다른 편(篇)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의 문자적 의미나 유학적 개념과 사상의 탐구에만 골몰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자(字)로 기록하지 않고 자(子)로 기록한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출현, 그것도 《논

100) 전목(錢穆), 《사서석의(四書釋義)》(臺灣, 學生書局, 1990), 16쪽. “論語一書, 其編次體例, 并無規定; 篇章先後, 似亦無甚意義.”

101) 김용옥, 《도올논어》(서울: 통나무, 2000), 154쪽 참조.

102) 주) 94의 책. 322-325쪽 참조.

103) 주) 101의 책, 같은 쪽 참조.

어》의 첫째 편(篇)에서 제 1장과 3장의 자왈(子曰) 다음에 기록된 점, 그리고 자공과 자하만 기록된 것은 그저 단순하고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논어》의 편찬과정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며 적어도 <학이편> 16장의 편찬은 누군가의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교묘하게 꾸며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형병(邢昺)은 《논어소(論語疏)》에서 <학이편>이 《논어》의 첫 편에 온 것은 그 내용이 모두 사람이 행하여야 할 대강(大綱)이기 때문이라 하였고¹⁰⁴, 최술은 당시 고제들이 의도적으로 공자의 치학(治學)의 방도(方道)와 인(仁)의 일을 밝히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¹⁰⁵ <학이편>에서 자왈(子曰)로 된 공자의 말 8장만 가려내어 살펴보면 인(仁), 효제(孝悌), 충신(忠信) 등 군자지학(君子之學)의 전제가 되는 수기(修己)의 내용들이어서 공자의 정신을 이해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최술의 말대로 <학이장(學而章)>, <제자입즉효장(弟子入則孝章)>, <군자부중장(君子不重章)> <군자식무구포장(君子食無求飽章)>은 치학(治學)의 도(道)로, <교언영색장(巧言令色章)>, <도천승지국장(道千乘之國章)>, <부제관기지장(父在觀其志章)>은 포괄적인 인(仁)의 일로 볼 수 있다. 또 마지막 장인 <불환인지불기지장(不患人之不己知章)>은 첫 장인 <학이장>의 내용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이편>에는 공자의 정신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거나 공자와는 지향(志向)이 서로 다른 유자, 증자, 자하, 자공 등의 말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서 형병(邢昺)과 최술(崔述)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104) 형병(邢昺), 《논어(論語疏)》(十三經注疏本): “此篇論君子孝悌, 仁人, 忠信, 道國之法, 主友之規, 聞政在乎行德, 由禮貴於用和, 無求安飽, 以好學能自切磋而樂道, 皆人行之大者, 故爲諸篇之先.”

105) 최술(崔述), 《논어여설(論語餘說)》(崔東壁遺書), <學而篇大義>. “但觀此首七章, 而學之道, 仁之事已得其大端矣. 推而言之, 忠信, 威重, 敏事, 慎言, 擇交, 改過, 就正有道, 亦莫非學之道也; 聖人之溫, 良, 恭, 儉, 讓, 賢人之慎終, 追遠, 孝子之三年无改, 亦莫非仁之事也. (中略)學而一篇, 蓋聖門高第深于道者所記, 示人以學之道, 仁之事, 深切著明, 莫過于此.”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오히려 윗사람을 거스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윗사람을 거스르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곧 인(仁)의 근본이다.(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학이편> 제 2장에 기록된 유자(有子)의 말이다. 효제(孝弟)는 <학이편> 제 6장의 기록처럼 공자의 주장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유자(有子)의 말에 이르러 공자의 본래 학문(學文)의 전제(前提)인 수기(修己)의 영역에서 체제에 순응하는 듯한 정치적 태도와 관련지음으로써 효제(孝弟)의 본의가 정치적 수사로 왜곡되어 버렸다. 주자(朱子)는 유자의 말이 후학들의 급선무도 아니며, 효제(孝弟)를 윗사람을 거스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과 연계한 것은 관대하면서도 평온한 성인의 말에 비해 다소 억지에 가까우며 효제(孝弟)를 이처럼 급박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¹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이 말을 <학이편>의 제 2장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유보남(劉寶楠)은 《논어정의》에서 당시는 교육이 황폐화 되고 경대부(卿大夫)들이 대부분 관직을 세습하여 효제(孝弟)의 도리를 알지 못하였고, 군주와 윗사람을 예로 섬기는 자가 드물었으며 마침내 난신적자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⁰⁷⁾고 하여 유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질서가 급격히 해체되어가고 있던

106) 주희(朱熹), 《주자어류》卷20, 論語二, <學而篇上·有子曰其爲人也孝弟章>: “因說陸先生每對人說, 有子非後學急務, 又云以其說不合有節目, 多不直截. 某因謂, 是比聖人之言語較緊. 且如孝弟之人豈尙解犯上, 又更作亂! 曰人之品不同, 亦自有孝弟之人解犯上者, 自古亦有作亂者. 聖賢言語寬平, 不須如此急迫看.”

107) 유보남(劉寶楠), 《논어정의》: “春秋之時, 學校已廢, 卿大夫多世官, 不復知有孝弟之道. 故事君事長, 鮮克由禮, 而亂臣賊子遂至接踵以起也.”

당시의 통치계급 입장에서 보면 유자의 말은 그야말로 왕도(王道)의 근본이 되고¹⁰⁸⁾ 치국(治國)의 보감이 될¹⁰⁹⁾ 만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자는 끊임없이 출사(出仕)를 원했지만 당시 통치계급의 질서를 옹호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로 배척당해야만 했다. 공자는 전 생애를 통하여 두 번의 정치적 망명길에 올랐다. 망명기간 동안 두 번의 출사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첫 번째는 노나라 정공(定公) 5년(BC501), 공자가 48세 되던 해, 계씨의 가신이었던 양호(陽虎)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전횡을 일삼자 제나라로 망명하였다. 제나라 경공(景公)이 중용할 뜻을 비쳤으나 중신(重臣)이던 안영(晏嬰)이 유자(儒者)는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통제하기 어렵고, 공자가 주장하는 예법으로 풍속을 교화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무산되었다.¹¹⁰⁾ 두 번째는 정공 12년(BC498) 공자 나이 55세 때, 삼가(三家)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당시 계씨의 재(宰)를 맡고 있던 자로를 시켜 사읍(私邑)의 무장해체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위나라로 망명하였다.¹¹¹⁾ 망명 도중 초나라 소왕(昭王)이 공자에게 영지(領地)를 주려 하였으나 영윤(令尹)이었던

108) 진천상(陳天祥), 《사서번의(四書辨疑)》: “古之明王, 教民以孝弟爲先. 孝弟舉, 則三綱五常之道通, 而國家天下之風正. 故其治道相承, 至於累世數百年不壞, 非後世能及也. 此可見孝弟功用之大. 有子之言, 可謂得王道爲之本矣.”

109) 정수덕(程樹德), 《논어집석(論語集釋)》(북경: 중화서국, 1990), 16쪽. “有子之言, 洵治國之寶鑑也.”

110) 주 97) 참조. <미자(微子)>: “齊景公待孔子曰: ‘若季氏, 則吾不能; 以季孟之間待之.’ 曰: ‘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111) 《좌전》정공 12년 조: “仲由爲季氏宰, 將墮三都, 於是叔孫氏墮郕. 季氏將墮費, 公山不狃叔孫輒帥費人, 以襲魯. 公與三子入于季氏之宮, 登武子之臺. 費人攻之, 弗克, 入及公側. 仲尼命申句須樂頎, 下伐之. 費人北. ……” 《사기·공자세가》: “孔子言於定公曰: ‘臣無藏甲, 大夫毋百雉之城.’ 使仲由爲季氏宰, 將墮三都. 於是叔孫氏墮郕. 季氏將墮費, 公山不狃叔孫輒帥費人襲魯. 公與三子入于季氏之宮, 登武子之臺. 費人攻之, 弗克, 入及公側. 孔子命申句須, 樂頎下伐之. 費人北. ……”

자서(子西)가 나서서 공자가 자공, 안회, 자로, 재아 등 뛰어난 제자들의 보좌를 받아 주나라의 예악과 제도를 복원한다면 결코 초나라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반대하여 소왕의 공자 초빙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¹¹²⁾ 이 때가 애공(哀公) 6년, 공자 나이 63세 되던 해였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공자의 망명은 모두 당시 통치계급이었던 계씨(季氏)와 직간접적인 대립을 통한 정치적 좌절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출사(出仕)를 통해, 심지어 반란의 무리에 가담해서라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제자들의 반대¹¹³⁾, 통치계급의 유자(儒者)에 대한 편견과 이해상충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인성(人性)과 주례(周禮)의 회복으로 정치를 도덕화하여¹¹⁴⁾ 장차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자의 정치적 이상을 자로(子路)가 이해할 리 없었고,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통해 사회를 규범화하려 했던 통치계급의 이념과는 필연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올은 공자의 14년간의 망명을 계씨에 대한 반항에서 계씨에 대한 굴복으로 끝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였다.¹¹⁵⁾

그러나 <학이편> 제 2장에 보이는 유자의 말은 공자가 전 생애를 통하

112) 《사기·공자세가》: “昭王將以書社地七百里封孔子. 楚令尹子西曰:‘王之使使諸侯有如子貢者乎?’ 曰:‘無有.’王之輔相有如顏回者乎?’曰:‘無有.’王之將率有如子路者乎?’曰:‘無有.’王之官尹有如宰予者乎?’曰:‘無有.’且楚之祖封於周, 號爲子男五十里. 今孔丘述三五之法, 明周召之業, 王若用之, 則楚安得世世堂堂方數千里乎? 夫文王在豐, 武王在鎬, 百里之君卒王天下. 今孔丘得據土壤, 賢弟子爲佐, 非楚之福也.’昭王乃止.”

113) 위의 책, “公山不狃以費畔季氏, 使仁召孔子. 孔子循道彌久, 溫溫無所試, 莫能已用, 曰:‘蓋周文武起豐鎬而王, 今費雖小, 儻庶幾乎!’欲往. 子路不說, 止孔子. 孔子曰:‘夫召我者豈徒哉? 如用我, 其爲東周乎!’然亦卒不行.” “佛盼爲中牟宰. …… 佛盼畔, 使人召孔子. 孔子欲往. 子路曰:‘由聞諸夫子, 其身親爲不善者, 君子不入也. 今佛盼親以中牟畔, 子欲往, 如之何?’孔子曰:‘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淄. 我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이와 관련한 기록은 <자로편>, <양화편>에도 보인다.

114) 김용옥, 《도올논어》, 103쪽. “공자는 도덕을 정치화 하려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도덕화하려 했다.”

115) 위의 책, 127쪽 참조.

여 추구하였던 정치적 지향(志向)과는 전혀 다르다. 공자의 효제(孝弟)를 가족적 윤리규범과 정치적 태도로 승화시켜 도덕을 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냄새가 짙게 풍긴다. 공자를 뒤이어 공문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된 유자가 과연 스승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맹자》에 의하면 유자는 성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자를 출류발취(出類拔萃)한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예기·단궁상》에 따르면 일찍이 유자와 증자가 논쟁을 벌였을 때 자유(子游)가 유자의 말이 부자(夫子)와 닮았다고 했으며, 이 논쟁에서 유자는 공자의 행적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과 <학이편> 12장, 13장에 기록된 유자의 말을 대조해 보면 동일인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품격이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12장과 13장의 말이 공자의 말과 매우 닮아 있다. 따라서 유자는 적어도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또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는 본래 유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항(劉嚮)은 공자의 말이라 하였고,¹¹⁶⁾ 유보남(劉寶楠)은 《논어정의》에서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는 본래 일시(逸詩)의 한 구절로 위의 두 구절은 고대(古代)의 성어(成語)였는데 유자가 이를 인용하였다는 것이다.¹¹⁷⁾ 결국 <학이편>의 제 2장은 유자의 말로 기록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유자의 말이 아닐 것이다. 앞부분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후, 당시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성어(成語)를 뒷부분에 그럴싸하게 끌어다 맞추어 유자의 말로 위장했을 것이다.

유자가 공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증자가 사실상 공문을 이끌어 갔을 것이다. 공자가 죽은 지 46년 후 증자도 죽었다. 증자의 죽음을

116) 유항(劉嚮), 《설원·건본(說苑·建本)》: “孔子曰:‘君子務本, 本立而道生.’”

117) 유보남(劉寶楠), 《논어정의》: “本立而道生, 阮氏元論仁篇, 以本立而道生爲古逸詩. 愚謂務本二句, 是古成語. 而有子引之. 說苑及後漢延篤傳皆作孔子語者.”, 정수덕(程樹德)의 《논어집석(論語集釋)》(북경: 중화서국, 1990)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고증하고 있다. 14-15쪽 참조.

끝으로 공자 생전에 입문한 제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공문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지도자의 부재는 공문집단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공문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체제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다행이 그들에게겐 위대한 유산이 있었다. 공자의 직전제자가 아닌 제자의 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공자 사후 제자들에 의하여 정리된 초기자료를 바탕으로 《논어》를 편찬하는 일이었다. 《논어》의 편찬은 공문집단이 존립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였다.

이때부터 《논어》는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편찬되었다. 《논어》의 초기자료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러한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작(僞作)이나 개작(改作)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새롭게 편찬될 《논어》에는 공문의 비조(鼻祖)인 공자와 함께 그들의 스승도 첫 편에 포함되어야만 했다.¹¹⁸⁾ 따라서 자신들의 스승을 유약(有若), 증삼(曾參)과 같이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스승을 높임과 동시에 공자의 후계자로서 공문을 이끌었던 지위를 공자와 동격시 하여 유자(有子), 증자(曾子)로 기록하여 공자의 말 다음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논어》에 민손(閔損)과 염구(冉求)도 민자(閔子), 염자(冉子)¹¹⁹⁾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의 문인도 《논어》의 편찬에 참가하였을 것이나 민자와 염자는 문인들의 세력이 미미하였거나 무엇보다 공문의 지도자를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이편>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증자(曾子) 사후 공문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문의 존립을 위한 《논어》의 편찬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공문의 출로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즉 유자와 증자가 공문을

118) 전목(錢穆), 《논어신해(論語新解)》(臺北: 東大圖書公司, 1988), 6쪽: “則有子固曾爲孔門弟子所推服. 論語首篇次章, 卽述有子之言, 似非無故而然.”

119) <선진(先進)>: “閔子侍側, 闇闇如也.” <옹야(雍也)>: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자로(子路)>: “冉子退朝”

이끌어가고 있을 때는 비록 공자와 같은 고결한 인격과 정치적 이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자의 정신과 지향은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자식이 부친의 도(道)를 오래도록 바꾸지 않는다면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는 말이 <학이편>의 제 11장에 기록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며 이를 반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자 사후 문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문집단의 출로를 위해 통치계급에 순응하는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길 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문집단이 더 이상 금령을 어기거나 법을 어지럽히는 집단이 아니며,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공자와 같이 통치계급의 이념과 대립하는 정치적 견해가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표방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 2장의 유자의 말로 기록된 것은 실제로는 유자가 한 말이 아니라 《논어》의 편찬과정에서 유자의 문인들에 의하여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최술(崔述)은 유자의 말이 성인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심오함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고제들의 말 보다 앞에 기록된 것이라 고증하였다.¹²⁰⁾ 그러나 도올은 너무 개념적인 조작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말이며 생생한 공자의 살아있는 모습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²¹⁾ 최술의 고증은 《논어》에 기록된 모든 말이 곧 성인의 정신을 대변한다는 성급한 믿음에서 나온 결과이다.

《논어》의 편찬과정은 증자를 포함한 대다수 문인들의 공감과 동의아래 진행되었을 것이다. 유자의 추대를 반대했던 증자 문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학이편>에 유자의 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자 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스승인 증자가 유자 이후 공문집단을 이끌었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유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하여 증

120) 최술(崔述),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崔東壁遺書) 권2, <有子子路非諸弟子所及>: “至有子務本之旨, 貴和之說, 咸能發聖人未發之蘊: 意其所得有深焉者, 是以游夏有似聖人之品目也. (중략) 則二子雖未逮夫顏閔而固非諸弟子所敢望也. 故冠之於諸賢之先.”

121) 주 114)의 책, 154쪽.

자의 말을 유자 다음에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학이편>의 제 2장에 유자의 것으로 조작한 말, 제 4장에 증자의 말을 끼워 넣어 기록한 것은 공자 사후 유자가 공문의 지도자였고, 유자 사후 증자가 공문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자(孔子)–유자(有子)–증자(曾子)라는 공문의 승계구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¹²²⁾

그런데 유자의 말 다음에 증자의 말을 이어서 기록하지 않고 중간에 공자의 말인 <교언영색장>을 끼워 넣었다.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훗날 증자 문인들 중 누군가의 손을 다시 거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 유자의 지위와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유자–증자의 순으로 배열하고, 또 유자의 말을 묵인했지만 사실 유자의 것으로 조작된 말이 공자의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는 교언(巧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자의 것으로 조작된 말로 인하여 공문집단이 스스로 공자 정신을 단절시켰다는 혐의를 희석시키고 동시에 증자가 유자의 후계자가 아니라 공자의 후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¹²³⁾ 원래 <양화편>에 있던 <교언영색장>을 슬그머니 유자의 말 뒤에, 증자의 말 앞에 다시 끼워 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언영색장> 다음인 제 4장의 증자의 말이라는 것도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필 제 1장의 <학이장>을 의식한 공자의 가르침과 전승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한 말이고,¹²⁴⁾ 제 9장에서 걸오로는 신중추원(慎終追遠)으로 민덕(民德)을 강조하긴 하였지만 마치

122) 고염무(顧炎武), 《일지록(日知錄)》: “愚按:‘論語首篇, 即錄有子言者三, 而與曾子并稱曰子, 門人實欲以二子接孔子之傳者.’”

123) 간조량(簡朝亮), 《論語集注補正述疏》: “以二子獨次乎學而第一篇之前列也. 有子次子曰學而章後, 不連有子而即次曾子者, 嫌次之於有子後也, 故必又起子曰巧言章而以曾子次其後, 明乎皆次之於孔子後也.”

124) 호지규(胡志奎), 《논어변증(論語辨證)》(臺北: 聯經出版社, 1978), <論語篇章組織考證>, 78쪽. “依首章‘學而時習之’, ‘人不知而不慍’乃至後章記曾子曰‘傳不習乎’之意.”

공자를 추념하고 기리고자 하는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듯한, 바로 앞장의 자왈(子曰)의 주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끌어다 넣은 것은 증자 문인들의 위와 같은 의도가 깊숙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자왈(子曰)–유자왈(有子曰)–자왈(子曰)–증자왈(曾子曰)이라는 <학이편> 첫머리의 구도가 완성되었다. 그런 다음 제 1장인 <학이장>과 맞추기 위하여 제 8장인 <군자부중장>과 제 14장인 <군자식무구포장>을 끌어왔으며, 그리고 증자와 가장 교유가 많았고 관계가 돈독하였던¹²⁵⁾ 자하(子夏)의 말을 제 7장에 끌어다 붙였으나 “군주를 섬길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事君, 能致其身)라는 말은 공자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며, “친구와 사귄 때 말을 하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與朋友交, 言而有信)라는 말은 제 4장의 증자의 아류에 불과하다. 또한 유자의 것으로 위장한 제 2장의 효제(孝弟)의 근거를 위하여 제 6장의 <제자입즉효장>을 끌어다 붙여놓았고,¹²⁶⁾ 제 11장의 <부재관기지장>은 <이인편>의 말을 바탕으로 개작하여 붙여 놓았다.¹²⁷⁾ 문인들에 의해 위조된 것이 아닌 유자의 말을 제 9장 증자의 말 아래인 제 12장과 13장에 배치하였고, 공자 사후 공문집단의 장문인 이었으며 공자에 대한 충성심과 망명생활 기간 중의 경제적 공로를 인정하여 제 10장에서는 공자를 현창하고, 제 15장에서는 공자가 자신을 칭찬한 자공(子貢)의 말을 그것도 제 9장인 증자의 말 아래 끼워 놓았다. 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

125) 구덕재(仇德哉), 《사서인물고(四書人物考)》(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3), 7쪽. “孔子弟子中, 卜商及曾參交往較多, 私交甚篤, 凡家庭事故, 身體健康, 相互極為關懷.”

126) 웅공철(熊公哲), 《공학발미(孔學發微)》(臺北: 正中書局, 1985), 上冊, 351쪽. “故論語首篇學而時習之後, 即次以入孝出弟章. 又輔以有子君子務本, 本立而道生云云. 玩其編次, 似亦有其精意存焉.”

127) <학이(學而)>: 子曰:“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이인(里仁)>: 子曰:“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김용옥《도올논어》, 53-54쪽. “이인편이나 술이편과 같은 것은 공자의 어록으로서는 초기자료일 것이라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이인편이 두 개의 파편(15, 26장)을 빼놓고는 모두 간결한 자왈(子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 말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여라.”는 말로 <학이편>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 1장 후반부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회한과 통탄이 숨어있는 듯한¹²⁸⁾ “人不知而不慍”이라는 말과 전후로 호응하는¹²⁹⁾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이인편>, <헌문편>, <위령공>편에 기록된 여러 공자의 말을 가져다 개작하였을 것이다.¹³⁰⁾

<학이편>에 기록된 공자의 말 중 다른 편에 기록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그 의미가 거의 같은 장은 모두 3장으로, 제 3장의 <교언영색장>의 말은 <양화편>, 제 11장의 <부재관기지장>의 후반부는 <이인편>, 또 마지막 장인 <불환인지불기지장>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인편>, <헌문편>, <위령공편>에 기록된 공자의 말과 별 차이가 없다. <학이편>의 3장과 다른 편에 보이는 말을 대조해 보면, 다른 편에 해당 장은 전후장(前後章)이 모두 공자의 말로 기록되어 해당 장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데 비해, <학이편>의 기록된 위 3장은 전후장, 또는 전장이 모두 제자들의 말로, 오히려 제자들의 말과 억지로 꿰맞추거나 논리적 필요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동원되어있다. 특히 제 3장의 <교언영색장>은 제 2장의 유자의 말로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최술의 말대로 공자가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심오함을 밝혔다고 한다면¹³¹⁾ <교언영색장>이 유자의 말 다음, 제 4장의 증자의 말 앞에 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이편>에 기록된 위의 3장은 당시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다른 편에 있는 말을 끌어 왔거나, 다른 편에 있는 말을 바탕으로 개작하였다.

128) 김용옥, 《도올논어》, 125-126쪽 참조.

129) 주)124의 책, 같은 쪽. “今考此章之意, 蓋亦與首章相應.”

130) <이인(里仁)>: “공자가 말하였다. 직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직위를 맡을 자질이 없는 것을 근심하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 줄 수 있도록 추구하여라.”(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헌문(憲問)>: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己不能也.” <위령공(衛靈公)>: “子曰: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己知也.”

131) 주)120 참조.

<학이편>의 편찬과 함께 공자에 의하여 노둔하다고 평가받았던 증자(曾子)에 대한 대대적인 현창(顯彰)이 시도되어 증자의 말 5장과 나머지는 모두 공자의 말로 기록된 <태백편>을 조작하였고,¹³²⁾ <위령공편>의 공자와 자공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도는 충서(忠恕)일 뿐이다”라고 하여 증자를 자공보다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증자가 공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장면으로 연출한 <이인편>의 말도 조작하였을 것이다.¹³³⁾ 이는 또 <학이편>에서 증자의 말을 자공의 말 앞에 배치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선진편>, <안연편>, <헌문편>의 각 1장, <자장편>의 3장도 이때에 개작되어 보태어졌을 것이다. 증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자의 부친인 증석(曾皙)마저 현창할 의도로 <공야장편>의 공자와 맹무백(孟武伯)과의 문답을 훔내 내어 <선진편>에서 증석을 끼워 넣고 마치 공자의 주요한 제자로 둔갑시켜 놓았다.¹³⁴⁾

결국 《논어》는 증자 사후 <계씨편>, <미자편>, <요왈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 의해 편찬된 <학이편>을 중심으로 위작되거나 정리되어 <학이편>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정자(程子)는 《논어》가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 의

132) 주)128의 책. “태백편 3장에서 7장까지 증자에 대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도 여기서 우리가 받는 증자에 대한 성스러운 느낌은 전혀 공자와는 무관한 사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공자가 죽고 난 멀고 먼 훗날에 증자의 제자들이 증자를 추념하여 쓴 것으로 단지 논어에 삽입된 것이다.”180-181쪽.

133) <위령공(衛靈公)>: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이인(里仁)>: 子曰:“參乎! 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出, 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34) <공야장(公冶長)>: 孟武伯問子路仁乎? 子曰:“不知也.”又問. 子曰:“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 不知其仁也.”“求也何如?”子曰:“求也, 千室之邑, 百乘之家, 可使爲之宰也, 不知其仁也.”“赤也何如?”子曰:“赤也, 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也, 不知其仁也.” <선진(先進)>: 子路, 曾皙, 冉有, 公西華侍坐. …… “點! 爾何如?”鼓瑟希, 鏗爾, 舍瑟而作, 對曰:“異乎三子者之撰.”子曰:“何傷乎? 亦各言其志也.”曰:“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夫子喟然歎曰:“吾與點也!”…….

해 편찬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¹³⁵⁾ 특히 유종원(柳宗元)은 증자의 문인들 중 악정자춘(樂正子春), 자사(子思) 등이 《논어》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주장하였다.¹³⁶⁾ 특히 증자의 문인들에 의하여 시도된 증자에 대한 현창(顯彰)은 이후 증자학파가 공자-증자-맹자로 이어지는 유가의 정통적인 지위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³⁷⁾

IV. 맺음말

공자 사후 자하(子夏) 등 당시의 고제(高弟)들이 유자(有子)를 공문집단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추천한 것은 구심점을 잃고 자칫 대립과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공문집단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유자가 키가 크고 공자를 닮았건, 언행과 기상이 성인을 닮았건 그건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였다. 증자의 반대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지고(至高)의 존재였던 공자를 잃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일시적인 의기(義氣)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유자 이후 증자가 실질적으로 공문집단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 결코 공자와 같은 고결한 인격과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자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자(曾子)의 반대를 빌미로 문인들의 집요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유자는 사실상 공문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채 중도에서 사퇴하고 말았을 것이다. 문인들에 의해 자행된 유자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 사건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맹자(孟子)는 언급하지 않았다. 맹자는 유자를 성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졌다거나, 공자를 출류발체(出

135) 주 17)참조.

136) 주 21)참조.

137)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장원철 옮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서울: 한길사, 2004), 322쪽 참조.

類拔萃)한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등 유자를 공문집단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인물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증자(曾子)-자사(子思)의 학통을 이어받은 맹자(孟子)가 유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자도 있을 수 없다. 유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학이편>의 자왈(子曰) 다음에, 증자의 앞에 유자왈(有子曰)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학이편>의 기록은 1993년 괘점초묘(郭店楚墓)에서 죽간 형태로 발견되어 《논어》의 초기형태로 보이는 <어충(語叢)>과 같이 제자들에 의하여 문집형태로 정리된 수 천 편의 자료를 기초로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서로 의논하여 편찬하였다. 유자와 증자의 말을 끼워 넣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작하거나 끌어다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남회근(南懷瑾)은 《논어별재(論語別裁)》에서 《논어》 편장(篇章)의 차서에는 일관된 계통이 있다고 하였는지도 모른다.¹³⁸⁾ 제 2장의 유자왈(有子曰)은 유자의 것이 아니다. 최술(崔述)의 말대로 성인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심오함을 밝혔다면 유자가 공자를 이해한 정도를 넘어 공자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말인가?

<학이편>에 안회(顏回)와 자로(子路)는 없다. 민자(閔子)와 염자(冉子)도 없다. 자하와 함께 유자(有子)를 추천하였던 자유(子游), 자장(子張)도 없다. 오직 유자(有子)와 증자(曾子)라는 주연배우와 공자(孔子)라는 조연배우가 있을 뿐이다. 자하(子夏)와 자공(子貢)은 있으되 그림자에 불과하다. 공자의 정신은 왜곡되었고 증자(曾子)는 《논어》를 통하여 부활하였다. <학이편>은 공자(孔子)-유자(有子)-증자(曾子)라는 공문 후계구도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철저하게 계산되고 교묘하게 짜 맞추어진 한 편의 드라마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왕도(王道)의 근본이 되고 치국(治國)의 보감이 되어 온 《논어》의 첫 번째 편이기도 하다.

138) 남회근(南懷瑾), 《논어별재(論語別裁)》(상해: 복단대학출판사, 2005), 上冊, 4-5쪽. 이령(李零)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성인을 버리면 참 공자가 보인다》, 7쪽 “南老懷瑾說, 《論語》有一貫的系統, 哪章接哪章, 哪篇接哪篇, 都很有講究, 絕對不能動, 這是不顧事實.”

<參考文獻>

- 하북성문물연구소(河北省文物研究所), 《定州漢墓竹簡—論語》(北京: 文物出版社), 1997.
- 왕충(王充), 《논형(論衡)》(注解本)(北京: 北京大學歷史系), 1979.
- 유종원(柳宗元), 《유하동집(柳河東集)》(四庫全書本), 臺灣商務印書館.
- 주희(朱熹), 《사서집주(四書論語集注)》(臺灣: 中華書局), 1989.
- _____, 《주자어류(朱子語類)》(臺灣: 華世出版社), 1987.
- 왕응린(王應麟), 《곤학기문(困學紀聞)》(文淵閣四庫全書)
- 주이존(朱彝尊), 《경의고(經義考)》(北京: 中華書局), 1998.
- 장학성(章學誠), 《문사통의(文史通義)》(臺北: 華世出版社), 1980.
- 고염무(顧炎武), 《일지록(日知錄)》(文淵閣四庫全書)
- 유보남(劉寶楠), 《논어정의(論語正義)》(北京: 中華書局), 1990.
- 적호(翟灝), 《사서고이(四書考異)》(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최술(崔述),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崔東壁遺書)
- 전목(錢穆), 《사서석의(四書釋義)》(臺灣: 學生書局), 1990.
- 임어당(林語堂), 《공자의 지혜(孔子的智慧)》(北京: 群言出版社), 2009.
- 옹공철(熊公哲), 《孔學發微》(臺北: 正中書局), 1985.
- 채인후(蔡仁厚), 《공문제자지행고술(孔門弟子志行考述)》(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2.
- 남회근(南懷瑾), 《논어별재(論語別裁)》(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 양백준(楊伯峻), 《논어역주(論語譯注)》(北京: 中華書局), 2009.
- 이령(李零), 《성인을 버리면 참 공자가 보인다(去聖乃得真孔子)》(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8.
- _____, 《상갓집 개(喪家狗)》(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7.
- 당명귀(唐明貴), 《논어학사(論語學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 역중천(易中天), 《백가쟁명(百家爭鳴)》(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 정수덕(程樹德), 《논어집석(論語集釋)》(北京: 中華書局), 1990.
- 호지규(胡志奎), 《논어변증(論語辨證)》(臺北: 聯經出版社), 1978.
- 구덕재(仇德哉), 《사서인물고(四書人物考)》(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3.
- 김용옥, 《도올논어》(서울: 통나무), 2000.
-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장원철 옮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서울: 한길사), 2004.
- 주정현(朱廷獻), <논어원류고(論語源流考)>, 《孔孟月刊》, 第12卷, 第4期, 1973.
- 도희성(陶希聖), <論語之編成>, 食貨, 第5卷, 第8期, 1975.
- 장학파(張學波), <論語之編纂及其篇章眞僞略考>, 《孔孟月刊》, 第16卷, 第11期, 1978.
- 단승빈(單承彬), <定州漢墓竹簡本論語性質考辨>, 《孔子研究》, 2002年 第2期.
- 拙 著, <최술의 춘추논설에 관한 재검토>, 《중국학연구》, 제33집, 2005.

<中文提要>

读《论语·学而》时, 难免自有不释然者, 有子与曾子二人不书其名而以子称之, 其言即列于孔子之后, 而列于子夏、子贡诸贤之前。孔子曾周游列国, 七十子之中, 唯有颜渊与子路, 侍从孔子, 身影不离。但《学而》中并无此二贤之言。有子与曾子乃属于孔子后期弟子, 当孔子之时, 未曾入《论语》所谓德行、政事、言语、文学等四科之堂奥, 可知二子并非其他弟子门人所望者明矣。然则有子、曾子之言, 为何冠之于《学而》? 柳宗元云: “今所记独曾子最后死, 余是以知之。盖乐正子春、子思是徒与为之尔。或曰孔子弟子尝杂记其言, 然而卒成其书者, 曾氏之徒也。” 程子亦云: “论语, 曾子、有子弟子撰, 所以知者, 惟二子不名。” 有子、曾子门人论撰论语, 其尊师而以子称之则可知, 而其称子而系于孔子之后则不可知。

依孟子所言, 孔子既歿, 子夏、子张、子游等人, 以有若似圣人, 欲以所事孔子事之, 强曾子, 而曾子曰不可。朱子注《孟子》曰: “盖其言行气象有似之者, 如檀弓所记, 子游谓有若是言, 似夫子之类是也。”《史记·仲尼弟子列传》云: “孔子既歿, 弟子思慕, 有若状似孔子, 弟子相与共立为师, 师之如夫子时也。”孔子死后, 孔门一时无师可尊。由<子张>所记而可推知, 弟子之间相峙而并立, 门人各尊其师而从之。当时孔子弟子, 子贡最高, 乃孔门之掌门人, 而子贡未掌握孔门。虽识有若或似圣人, 或状似孔子, 但有若固非以其貌而事师之。《孔子家语》谓有若曰: “为人强识, 好古道。”《孟子》褒扬有若曾与子贡, 宰我等尊孔子为‘出类拔萃’之圣人。有若可受子贡等高第之所目, 是故子夏等相与而欲立有若以师之。朱子亦云: “想是一个重厚和易底人, 当时弟子皆服之。”有若, 虽不足以比孔子, 而孔门之所推尚, 一时无及有若可知矣。

有子既立为孔子接班人, 虽后遭门人所叱, 而未曾以此事而自退。有子死后, 曾子接力而传孔子。孟子既受曾子、子思之学, 其曾褒扬有子, 而似无识《史记》所记叱辟有子之事者, 此乃认曾子为孔子之传者而不得已而矣。《礼记·檀弓》云: “孔子卒, 哀公谯之; 有若之丧, 悼公吊焉。”曾子老而死, 孔门再无可尊而立师之者。为门人而言, 惟有其相与论撰《论语》以传承孔子所述者而已。是故有子、曾子门人引其成篇者, 再编撰《论语》诸篇。有若、曾参及为孔子之传者, 故不以名而以子称之, 欲表其意而列于《论语》首篇。有子之言, 冠之于诸弟子, 即列于孔子之后, 曾子之言亦列于孔子之后。由此门人实欲以二子接孔子之后者可得矣。《论语》, 虽不出一时一人之手, 而多成于有子、曾子之门人者亦可得矣。

주제어: 有子, 曾子, 子贡, <学而篇>, 孔门, 《论语》

